

창조도시와 창조계급 :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최 병 두*

Creative City and Creative Class: Conceptual Issues and Critiques*

Choi, Byung-Doo**

요약 :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탈산업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공간적 재구성 간 관계를 반영한 이론이다. 이 논문은 우선 창조도시 이론의 발달 배경으로서 지식기반경제 또는 문화경제의 접근방법들을 고찰하고, 창조도시의 개념화에서 구분되는 유형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창조도시 이론을 직접 논의한 국내외 연구 동향에서 비판적 관점들을 정리하고, 이의 함의를 신자유주의와 관련시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창조성 또는 창조경제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창조계급과 공간적 구성으로서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창조계급의 개념은 '계급'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계급-편향성과 경제 특권적 사고, 상품화 또는 시장 가치화의 촉진, 탈공동체적 개체화, 유연적 노동시장의 규범화, 도시 경제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창조도시의 개념은 (대)도시에 한정된 관심, 국가적 및 지구적 차원 무시, 탈맥락적 규범적 전망, 신자유주의적 도시의 정당화, 창조계급 유치 및 경제 발전과의 인과성 입증 부족, 도시 및 국토 공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주요어 : 창조도시, 창조계급, 문화경제, 문화적 전환, 신자유주의

Abstract : The theory of creative city can be seen as one that reflects a relationship between recent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o-spatial reconstruction in the so-called 'cultural turn' to deindustrialization. This paper considers approaching methods to knowledge-based economy or cultural economy as a context of development of theory of creative city, and suggests types of conceptualization of creative city. Then it reviews creative perspectives which can be found in recent domestic and oversea research trends on creative city, especially relating its nature with neoliberalism.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ly the concept of creative class as a social constitution of creativity or creative economy, and that of creative city as its spatial constitution. The concept of creative class can be criticized in terms of ambiguity of the concept of class, class-biased and economy-privileged idea, market valorization of culture, individualization against community, normalization of flexible labor market, and uncertainty of economic success of creative city. The concept of creative city can be criticized in terms of limitation of interests to city, ignorance of national and global dimensions, decontextual normative vision, legitimation of neoliberal city, lack of proof of causality between creative class and economic success, polarization of within and between cities.

Key Words : creative city, creative class, cultural economy, cultural turn, neoliberalism.

1. 서론

오늘날 도시들은 과거 경제적 부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 혁신과 문화적 창조성에 바탕을 둔 지식 기반산업 또는 문화경제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로 인해 기존의 도시 공간 내에서 발달했던 제조업이 위축하거나 또는 역외로 이전하는 한편, 새로운 첨단기술 및 문화·예술부문에 투자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 경제는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유연적 축

적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기술과 정보, 창조성과 혁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의 기술적, 문화적 창조성과 이를 담지한 창조적 사람들은 당면한 도시 문제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시 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의 재생을 위한 원천 또는 지배적 집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념적으로 반영한 이론이 창조도시(또는 창조경제)이론이다. 즉 창조도시 이론은 물질적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포드주의적 산업사회에서 비물질적 요소들의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를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bdchoi@daegu.ac.kr)

구축하게 된 포스트포드주의적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물론 탈산업사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이미 1950~60년대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이름(예로 탈산업사회론, 정보사회론, 지식기반사회론 등)으로 불려왔으며, 좀 더 좁은 의미로 ‘문화경제’에 관한 논의들도 다양한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된 이론들 가운데 하나가 2000년대 초 랜드리(Landry)와 플로리다(Florida) 등에 의해 체계화된 창조도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이 주창된 이후, 많은 개념적, 분석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열띤 논쟁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이 이론이 주창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 관련 정책들은 학술적 논의와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국가들과 도시 및 지역들에서 응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적 논의들이 시작되었고, 정책적 응용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특히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운영의 지침 중 하나로 내세움에 따라,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현 정부가 국내외에 자신의 정책 기조를 홍보하는 대표적 키워드가 되었고, 이에 관한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는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창조경제 담론은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서구의 창조경제 또는 창조도시 이론을 거의 탈맥락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특정 측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현 정부는 창조성 또는 창조경제의 구성에 필수적인 공간적 측면, 즉 창조도시의 개념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규범화하여,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정책적 논의들과는 달리, 창조도시를 개념적으로 논의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비판적 관점에서 창조도시 이론, 특히 플로리다가 제시한 이론을 분석하는 한편, 창조성을 포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창조도시 이론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선 창조도시 이론이 전개된 서구적 배경과 접근 방법, 그리고 창조도시의 개

념적 유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창조도시를 개념적으로 논의한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정리하고, 나아가 창조도시에 관해 해외에서 이루어진 최근 연구들의 비판적 성찰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성 또는 창조경제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창조계급의 개념과 이의 공간적 구성으로서 창조도시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창조도시 이론의 배경과 접근방법

1) 문화적 전환과 ‘문화경제’ 접근방법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현대 도시의 탈산업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도시공간의 재편 과정을 개념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졌던 서구 경제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지식기반경제’ 또는 ‘문화경제’로 관심을 옮겨가게 되었다. 지식기반경제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이외에 지식(또는 정보, 문화 등 무형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지향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추구한다(이희연·이제연, 2010). 여기서 지식이란 기술과 정보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창출·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및 연구 능력과 사회적 협력관계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는 과거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해 물질적 상품들을 생산하는 경제체제와는 달리 지식의 투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즉 지식기반경제와 흔히 혼용되고 있는 문화경제는 도시의 문화와 예술, 소비와 생활양식, 경관과 스펙터클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징지어진다(Amin and Thrift, 2007).

지식기반경제가 가지는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초기에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특정한 지식이 창출되면 이 지식

의 추가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비용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수확체증’효과라고 불리며, 지식기반경제는 이 특성으로 인해 상당히 모험적이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는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혁신의 활용을 위하여 고기능 노동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고기능 노동자들은 높은 지적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지식은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적 지식’과 더불어 특정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사회공간적 관계에 내재된 ‘암묵적 지식’으로 구분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의 이동성과 더불어 특정 장소에의 착근성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요컨대 산업사회의 물질기반경제는 상품의 물질적 소재 투입과 산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집착했던 반면, 탈산업사회의 지식기반경제는 무형적 가치의 생산과 소비, 소유와 활용, 그리고 이의 사회공간적 유통과 뿌리내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물질적 자원의 투입과 생산보다 무형의 지적 자산의 투입과 생산이 더 강조됨에 따라,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 자산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사회 제도와 문화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들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재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적 전환’이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담론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문화적 전환은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재구조화와 연계된다. 즉 1970년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의 쇠퇴 이후, 기업들은 지구·지방화과정 속에서 경쟁적 우위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찾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을 차별화하고 상품의 물질적 속성이나 기능성과는 또 다른 심미적 측면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기호나 상징이 강조되었고,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의 상부구조로서 포스트모던 문화양식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발달과 문화적 전환은 이에 따른 사회적 및 공간적 구조의 재편을 동반했다. 고기능(또는 고급지식)노동자들은 높은 수준

의 소득을 향유하면서 사회적 지배계급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그리고 도시 공간은 새로운 문화산업과 이를 추동하는 혁신 노동력의 유치를 위한 장소로 재편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생(또는 재활성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시계획이나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도시 문화가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경제적 경쟁성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은 제품들의 상징적 측면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자체를 상품화하려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도시 전통 문화의 복원 또는 새로운 문화의 조성과 이를 소비하기 위한 장소 만들기(예로 도시축제, 다양한 문화 시설과 건축 등)는 도시재생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장소만들기는 도시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상징적 자본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역외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지난 몇 십 년 사이 이와 같은 문화적 전환과 이에 따른 현대 도시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개념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서로 중첩된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대체로 주된 연구 주제와 접근 방법의 차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Gibson and Kong, 2005; Costa, 2008). 가장 광의적인 연구 유형은 도시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적 활동에서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회공간적 가치 함양(valorization)과 관련된 포괄적 논제들을 부각시킨 연구, 즉 문화와 정체성에 기반을 둔 도시 경제의 새로운 발달을 전제로 한 문화도시(경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에는 후기 자본주의의 ‘신경제’에서 작동하는 노동시장과 생산양식의 변화를 고찰한 스콧(Scott, 2000)의 연구나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진 지킨(Zukin, 1995)의 연구 등으로 대표된다. 이 유형의 연구는 도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자산으로 도시의 문화와 예술, 정체성과 이미지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지만, 자본주의 도시경제의 문화적 요소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은 ‘창조도시’론(특히 플로리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Scott, 2006).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 다소 좁은 것으로, 문화적 활동을 도시 발전과 경쟁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서 문화 활동의 집적 또는 클러스터의 역할이나 이들의 영역적 역동성, 문화적 자원에 바탕을 둔 국지적 경제체제나 혁신 분위기의 영역적 착근성 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이 유형의 연구는 도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지구나 문화공간, 그리고 문화적 자원에 의해 추동되는 도시 혁신 등을 강조한다. 이들은 도시에서 (문화정책이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전개되는 문화주도적 경제활동의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 문화적 근린지구, 문화적 자원의 혁신 분위기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예로 구겐하임 박물관이나 할리우드 영화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문화적 활동과 조직들처럼 도시 및 지역의 문화행사 조직이나 문화 현장 활동과 관련된 문화경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의 사례로는 첫 번째 유형의 연구를 구체화한 분석(예로, Scott, 2002)이나 도시 내 문화지구나 클러스터들에 관한 연구(예로, Lazzarretti, 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자들은 창조도시 이론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지만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문화적 클러스터와 국지적 경제발전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예로, Cooke and Lazzarretti, 2008).

세 번째 유형의 연구는 도시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으로 문화 활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의 다양한 부문들에서 전개되는 문화적 활동들을 도시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장려한다. 도시의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공간 조성을 장려하는 제도와 시설, 이를 통한 문화 촉진과 도시 재발에 참여하는 국지적 개발 주체들의 역할도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도시 경제의 주요 문화적 부문들을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시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경제의 세부 부문들은 예로 대중매체와 인쇄 출판, 극장, 전시관, 각종 문화 행사의 관리 등뿐만 아니라 단순한 실용성을 증가하여 심미적 측면에 강조되는 실내 디자인이

나 가구, 주방용품의 제작까지 포함한다. 이 유형에는 문화 정책과 도시재생 간 관계를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들(Bianchini and Parkinson, 1993)이나 탈산업 도시의 문화적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둔 연구(O'Connor and Wynne, 1996), 또는 도시의 각종 문화산업들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창조도시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수용하고자 한다(예로, Pratt, 2004; Kong and O'Connor, 2009).

네 번째 유형의 연구는 도시의 문화 활동을 ‘창조도시’ 개념에 직접 바탕을 두고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탈산업도시의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문화를 ‘창조성’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창조성에 바탕을 둔 창조도시를 조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시의 분위기나 조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은 플로리다(2011)처럼 도시 발전의 성공 조건으로 창조성 특히 창조적 사람(즉 그가 지칭한 창조계급)의 유치를 강조하거나, 랜드리(2005)처럼 도시 재생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서 도시인들의 창조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유형은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창조산업 또는 창조경제의 촉진을 장려하는 연구들도 포함한다(Cavas, 2002). 이들은 창조성을 도시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창조산업을 도시 발전의 새로운 발판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한 창조적 인재의 유치를 주요한 전략으로 설정한다. 창조도시의 개념에 직접 관심을 둔 이 유형의 연구는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창조도시 접근방법과 유형 구분

지식기반경제의 발달과 문화적 전환을 통해 부각된 문화경제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창조도시 이론은 이러한 접근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2000년대 초 플로리다 및 랜드리 등에 주창되었고, 그 이후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논쟁적으로 검토된 이론이다. 창조도시 이론이나 개념은 이의 주창자들과 그 이후 논평가들에 따라 논의의 배경과 강조되는 측면이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창조도시를 선도적으로 주창한 연구자들 가운데 창조인력(또는 창조계급)의 유치를

표 1. 창조도시 이론의 접근방법

우선관심	창조적 계급	창조적 환경	창조적 산업
목표	창조적 인재 유치	창조적 분위기 조성	창조적 산업 개발
주요방법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여 창조적 경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고양	계획의 관점에서 도시 문제의 새로운 해법 추구로서 창조성의 활성화	문화적 생산물에 초점을 두고, 창조적 생산부문에 역동성 추구
주요전략	- 새로운 사회적 계급으로 혁신적 인적 자원 유치 - 도시의 경쟁성 확보, 촉진	- 창조적 도시재생 - 도시 관리를 위한 창조적 분위기 창출	- 문화적 재화 서비스 생산 - 문화·창조적 활동 집적(클러스터)으로 도시 공간 발달
연구자	플로리다(2011)	랜드리(2005)	Pratt(2004), 사사키(2004)

자료: Costa(2008)에서 정리, 수정

통한 창조도시의 경제성장에 우선 관심을 가진 플로리다,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의 창조성과 문화에 초점을 두고 창조적 도시 재생을 강조한 랜드리,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제품들을 생산하는 창조산업을 부각시키면서 도시의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자들, 예로 프랫(Pratt, 2004), 사사키 등으로 구분된다(표 1) (한상진, 2008; 임상오, 2009; 이철호, 2011; Costa, 2008 등 참조).

창조도시 이론의 주창자들 가운데 플로리다(2011; 2008)는 가장 큰 관심을 끌면서 이 이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 서 있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창조도시를 창조적 인력을 유치하여 창조성에 바탕을 둔 경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련지운다. 플로리다는 높은 자질을 가진 창조적 인간 자원을 지칭하기 위해 ‘창조계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들을 역동적 도시 발전의 경쟁성과 생동감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도시의 창조적, 혁신적 능력은 이러한 새로운 계급을 양성 또는 유치하여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그가 ‘3T’라고 명명한 인재, 기술, 관용의 정도에 좌우된다. 이러한 창조도시의 특성에 따라 이동하는 창조계급은 창조산업이나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도시의 경쟁성을 촉진시킨다고 주장된다.

랜드리(2005)는 플로리다와는 다소 다른 맥락, 즉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창조도시를 제안한다. 즉 그에 의하면, 창조도시란 침체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된다. 그의 연구는 창조도시의 국

지적 문화와 정체성에 분명 뿌리를 두지만, 단순한 문화적 활동을 능가하여 창조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또한 그의 논의는 도시의 경제성장보다 도시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우선 관심을 두며, 이에 따라 예로, 국지적 교육체계, 교통 또는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가능한 해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성은 예술가의 영역이라는 사고나 혁신은 대부분 기술적이라는 사고를 뛰어넘어, 사회적, 정치적 창조성과 혁신을 부각시킨다. 그는 도시 계획과 혁신을 위한 도구함으로써 창조성에 초점을 두고, 도시 관리를 위한 창조적 환경을 창출하고 창조적 실천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창조도시를 도시의 문화와 창조성과 관련지우지만 특히 도시의 문화적 생산물, 즉 문화산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예로 프랫(Pratt, 2004)은 창조도시를 창조적 생산부문의 특정한 역동성과 관련지운다. 이 경우,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관련 활동들은 창조성과 창조도시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창조도시의 최근 성공은 삶의 질을 발전시키고 도시 공간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경쟁성을 촉진하는 문화적 창조적 활동의 증가에 기반을 둔 영역화된 역동성 또는 정책 수행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창조도시 공간은 문화·창조적 활동의 집적체(즉 클러스터)로서 발달하게 된다. 또한 사사키(2004)에 의하면, 이러한 창조도시들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도시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권을 살리고 환경, 문화, 복지,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창조적인 도시를 설계하면서, 도시나 지역의 국지적 문화산업에 바탕을 둔 내발적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방

표 2. 창조도시의 유형 구분

분류기준	인재 유입형	환경 조성형	산업 추구형
대상	창조적 인재	창조적 환경	창조적 산업
주요개념	창조적 인재(창조계급)가 선호하는 도시 환경 구축	문화예술,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도시의 창조성 유도	전통장인 산업과 첨단산업의 창조적 융합
키워드	- 근린 문화·예술공간 - 공공·민간·대학의 유기적 네트워크	- 문화·예술환경 - 유연한 조직문화	- 창조산업 - 전통장인과 첨단산업
사례도시	바르셀로나	요코하마, 하이트헤드	가나자와

자료: 정재희, 2009, 56.

법을 모색한다(한상진, 2008).

창조도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의 차이는 이에 관한 주창자들의 논의 배경의 상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플로리다는 미국을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창조성과 문화의 발전 및 이를 위한 도시의 창조적 환경을 강조하는 반면, 랜드리는 유럽을 배경으로 도시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함양하여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미국의 플로리다가 기업가 정신과 문화적 창조성의 결합에 바탕을 둔 도시 성장에서 창조계급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영국의 랜드리는 문화를 도시 재생을 자극할 수 있는 창조적 자원으로 폭넓게 이해한다. 플로리다는 도시의 문화 자원을 ‘장소 특성화’의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이동성이 높은 창조계급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면, 랜드리는 도시혁신을 위한 창조환경으로서 도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철호, 2011). 또한 외부의 창조인력 유치에 의존하는 플로리다와는 달리, 랜드리와 사사키는 시민의 창조성에 바탕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이러한 3가지 접근 방법은 창조도시 자체의 유형 구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정재희(2009)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창조도시는 창조적 인재 유치, 창조적 환경 조성, 창조적 산업 개발 등 강조점에 따라 인재유입형, 환경조성형, 산업추구형 창조도시로 구분된다(표 2). 인재유입형 창조도시는 창조적 인재 즉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근린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민간·대학의 유기

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환경조성형 창조도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도시의 창조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 환경의 조성,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을 요청한다. 산업추구형 창조도시는 창조적 산업을 강조하면서, 예로 전통장인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창조적 융합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전통장인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창조적 산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창조도시 이론에의 접근 및 창조도시 자체의 유형 구분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창조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 이들은 모두 도시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창조성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 즉 창조적 인재(또는 창조계급)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이 된다. 둘째, 이들은 이러한 창조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시의 창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조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도시의 위치, 자연자원, 시장예의 접근성 등이 아니라 창조적 인재이며, 따라서 창조도시는 이러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 또는 유치를 위한 장소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분위기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은 이러한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는 창조도시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특히 창조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도시의 경제성장을 추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창조성과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도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설정한다.

3. 창조도시 연구동향과 비판적 성찰

1) 창조도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창조도시와 창조계급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 즉 창조경제에 관한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가 전개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확대·확산되면서 관련 이론을 둘러싼 논의나 이를 인용한 정책 보고서들이 국내외에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크게 창조도시 및 관련 주제들에 관한 개념적 고찰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실태 분석, 관련 정책 제안, 그리고 한계 지적과 대안 제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각 유형의 연구들은 서로 중첩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논의의 폭을 한정시키기 위하여 창조도시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개념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연구는 창조도시 정책 연구나 관련 실태 분석과는 달리 대부분 공통적으로 비판적 성찰을 제시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국내에서 창조도시 개념 또는 이론에 관한 본격적 연구들 가운데 하나는 한상진(2008)의 연구로, 그는 창조도시에 관한 주요 연구자들, 즉 플로리다, 사사키, 랜드리 이론적 맥락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이 시도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에 준거하여 창조도시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플로리다의 이론을 성장도시 중심의 선순환 논리,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일면적 관점 등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플로리다의 접근은 시장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공동체 영역의 제3부분이 담당하는 ‘호혜성의 경제’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3T 가운데 관용의 요소를 다양성, 개방성으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관용성은 게이내 외국인에 대한 용인을 뛰어넘어 협동적 문화와 호혜적 경제의 융합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임상오·전영철(2009)도 비슷하게 창조도시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계보(제이콥스, 랜드리, 사사키, 플로리다 등)를 정리하고, 창조계급 및 창조도시를 둘러싸고 전개된 이들의 논의의 쟁점들을 열거한 후, 창조도시의 조건과 도시 창조성의 측정 지표

를 살펴보고, 끝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재정적 접근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은 창조도시 이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가지지만, 이에 관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창조도시 정책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시설(창조도시의 문화 인프라), 예로 미술관, 도서관,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극장 등의 조성은 건설비 및 유지비 등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요함으로써 도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비판된다.

김소희(2010)의 연구는 창조도시의 목표가 비록 어떤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창조도시 이론은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문명이 빚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인의 일상의 삶의 축소와 문화적 기억의 단절 또는 뿌리뽑힘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김소희는 이러한 창조도시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바우만(Bauman)의 이론(특히 ‘액체 근대’ 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창조도시의 사회의 공간적 안전감을 위해서 도시인의 삶의 위기에 주목하고 당면한 위기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성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한세익(2011) 역시 창조도시의 이론적 성격과 접근을 통해 창조적 도시의 가치와 지향점 그리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현대 도시는 가시적 스펙터클의 창출(시각 권력의 함정), 부동산 거품과 도시 마케팅(자본 탐욕의 함정), 권력지향적 공간정치(세속적 권력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창조도시의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쾌적성, 지능성, 인간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조도시의 중요한 지향점은 창조적 인재에게 절실한 자유를 보장하고, 정책지속성을 추구하는 시민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창조도시를 구현함에 있어 공공부문의 성격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된다. 정성훈(2012)도 비슷한 맥락에서 창조도시 및 문화도시 개념의 모호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이러한 도시 개념의 위험성이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철호(2011)는 플로리다의 이론에 초점을 두고 창조도시 또는 ‘창조자본’ 이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이 이론에 내재된 보편과 특수, 세계성과 지역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 이론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이론에 함의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준홍(2012)도 창조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창조계급의 장소 선호 및 선택에 관련하여 플로리다의 논제를 비평하면서, 창조적 인재들이 관용적, 개방적 도시 분위기에 이끌려 주거나 직장의 장소를 선택한다는 주장은 특정 환경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과 그 위계적 질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창조도시에 관한 이러한 개념적 연구들에서 제시된 비판적 논제들은 첫째, 창조도시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현실 배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공간적 재편 과정을 반영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로 한상진(2008, 196)은 플로리다의 이론은 “삶의 질과 공간의 질 제고로 창조계급을 유치함으로써 도시 활성화”를 추구하지만,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지구화에 따른 경제적 추세를 고급 노동력의 고소득화로 일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양극화와 불균등 발전으로 대다수 사회적 배제 계층이 겪는 삶의 공간의 주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소희(2010)은 창조도시는 근대 물질문명으로 인해 황폐화된 도시인들의 창조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도시인들이 겪고 있는 시공간의 생애단절과 세대 간 단절과 이로 인한 ‘문화적 기억’의 뿌리 상실 등 도시인의 문화적 위에 초점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기를 치유하고자 하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둘째,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연구들은 창조도시 이론 자체에 포함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철호(2011)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첫째 플로리다는 주로 하이테크산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화·창조산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둘째, 플로리다의 3T 분석은 도시성장 조건을 지수화하기 위해 여러 변수들을 선정했지만, 이 변수들이 적합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플로리다는 기업이 창조적 인재를 찾아 입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창조적 인재의 이동성이 그 자체로 도시 성장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성장하는 도시에 이러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외부의 창조인력 유치를 강조하는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이론은 창조적 인재의 이동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이 점은 도시의 내생적 발전과 도시인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랜드리오의 창조도시 이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창조자본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지 못한다.

셋째,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연구들은 이에 관한 이론을 국내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예로 임상오·전영철(2009)에 의하면, 창조도시 개념과 정책은 사람들의 창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창조도시 또는 문화도시 정책은 이를 명분으로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을 우선함으로써 도시의 재정 압박을 초래하여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도시 정책 및 행정의 한계는 다소 왜곡되었지만 한세억(2011)에 의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철호(2011), 김준홍(201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적 상황에서 창조도시의 논리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로, 한국에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플로리다가 제시한 지수나 변수들이 적합한가, 한국에서 창조적 개인들이 관용적 장소나 개방적 환경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가, 또는 한국의 대기업 중심 창조산업들이 창조적 인재를 찾아서 입지하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검증 없이 창조도시 이론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창조도시에 관한 국내의 개념적 연구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창조도시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창조도시 이론을 완전

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정성훈(2012)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창조도시 또는 문화도시의 개념은 “세계사회의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토건중심 도시계획에 맞서는 진보적 힘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한상진(2008)은 사사키의 입장, 즉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와 부분적인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한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사사키, 2004, 53)의 개념이 “자신이 시도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에 입각한 창조도시의 재구성에 가장 부합되는 논의”라고 평가한다. 임상오·전영철(2009)은 랜드리(2005)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많은 창조도시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1980년대 경시되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실험적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회참여와 고용 촉진을 지향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김소희(2010)는 바우만의 시각에서 도시인들이 당면한 현실 위기를 지적하고, 창조도시이론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지만, 창조도시의 개념 자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미래사회의 기획에 중요한 시사점과 흐름의 전망에 유의한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창조도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창조도시에 실제 거주하는 도시인의 내부적 시각에서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이철호(2011)는 플로리다의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기 위해 이른바 ‘시민공간’(civic space)”, 즉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체험하여 공감하도록 하며 나아가 공동의 대응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시한다. 한세역(2011)도 기존 창조도시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창조적 도시를 사회공공성의 모델에 입각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정성훈(2012) 역시 창조도시 개념과 문화도시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문적 개념인 ‘인권도시’를 제안하고 검토한다. 창조도시 이론에 관한 국내 논의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창조성의 개념에 바탕을 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창조도시에 관한 비판적 성찰

플로리다와 랜드리 등에 의해 창조도시 이론(그리고 영국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이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국가와 도시들은 창조도시 또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했다.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물론 상당히 논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평가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Boren and Young, 2012). 예로, 로렌츠와 룬드발(Lorenz and Lundvall, 2010; 김준홍, 2012 재인용)에 의하면, “플로리다는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창조성을 경제적 부가가치로 전환시키는 창조계층을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조성을 사회과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창조도시 이론이 각 국가 또는 도시/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과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Clifton, 2008; Rutten & Gelissen, 2008 등).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개념적 고찰보다는 정책적 제안이나 창조도시 지표들을 이용하여 현실 도시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반면, 많은 논평가들은 창조도시 이론을 둘러싼 논의에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예로, 창조도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펙(Peck, 2005)은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이론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상응하는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창조성 또는 창조도시 전략은 문화와 결합하여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보다 그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전략들은 예술과 문화자원, 심지어 사회적 관용 자체를 상품화하고 이들을 심화되고 있는 도시 경쟁체제에 상상의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하고자 한다”(Peck, 2005, 765). 나아가 펙(Peck, 2007)은 창조경제 또는 창조도시라는 용어는 문화적 자유 의지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력을 가진 현대 도시 설계의 동기들을 결합시킨 일단의 원칙들에 바탕

을 둔 ‘경제적 상상’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이러한 창조도시 전략을 위기에 처한 서구 (도시)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창조성 조정’(creativity fix)이라고 개념화한다.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에 대한 또 다른 비판가로 잘 알려진 스콧(Scott, 2006)은 플로리다의 이론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서 등장한 ‘신경제’의 작동 메커니즘(특히 유연적 노동과정과 생산체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창조경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술, 생산구조, 노동시장, 입지 집적의 역동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포드주의의 신경제에 의해 발달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이의 공간적 편성에 관한 연구는 창조경제를 추동하는 특정한 생산체제와 노동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cott, 2006, 11).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창조도시와 관련된 현상들이 최근 기술, 생산구조, 노동시장, 그리고 입지 집적의 역동성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에 의하면, 생산, 학습 및 혁신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적인 인재 유치 전략으로는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창조성과 창조도시에 대한 이론적 규범성이나 전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창조도시에 바탕을 둔 규범적 대안을 추구하거나 좀 더 정교한 분석틀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 점은 창조도시 이론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 펙(Peck, 2011)에게도 적용된다. 즉 그는 플로리다가 제안한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1980년대 초 영국의 일부 지방 사회주의적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던 ‘문화산업’ 사업을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기적 과장으로 끝났지만 예로 광역런던위원회의 문화전략에 앞선 맹아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스콧(Scott, 2006; 2010)은 창조도시와 창조계급에 관한 논쟁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서 ‘창조의 장’(creative field)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창조의 장이라는 용어는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피고용자들의 네트워크를 포괄하며, 나아가 창조성의 개인적 표현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일단의 관련

성들로 정의된다. 그는 이 개념에 근거를 두고 생산과 노동의 집합적 구조에서 존재하는 문화, 관행, 제도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창조도시 이론이 여러 측면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항목들에서 개념적으로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예로 마크슨(Markusen, 2006)은 창조도시 관련 연구들이 창조성, 창조산업에 대해 지극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창조계급과 경제발전 사이 상관관계만 기술하고 있을 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예로, 창조계급의 유치가 도시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역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도심 환경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창조계급이 유입되어 창조적 문화가 발달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의문, 즉 도시 경제발전 발전에서 산업 입지가 먼저인가 또는 창조적 인재가 먼저인가에 관한 의문은 창조도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마크슨은 창조산업의 분류에 있어 예술가 집단의 특이성 무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프렛(Pratt, 2008) 역시 창조도시 및 관련 이론이나 개념들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창조계급의 사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 선전주의(boosterism) 또는 장소마케팅의 부흥이라고 비판된다. 마크슨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창조계급이 도시재생의 인과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사고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창조계급의 유치가 창조산업을 끌어들이 것이라는 가설적 사고에 대해,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는 문화의 본연적 가치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와 창조산업은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리다의 이론은 “전통적인 행태주의적 주장이나 환경결정론적 주장 또는 부동산 주도적 전략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플렛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을 생산과 소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대 도시에서 문화적 생산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펙(Peck)이나 스콧(Scott)처럼 창조도시 이론이 현대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에 내재된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촉진하고자 한다는 비판이다. 이 유형의 비판은 특히 창조도시 이론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하거나 그 자체로서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유형의 비판은 마크스(Markusen)이나 프랫(Pratt)처럼 창조도시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론의 여러 부분들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념적으로 모호하며, 이를 반영한 정책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비판들은 대부분 뒤얽혀 있지만, 우선 여기서 전자의 비판을 간략히 재정리하고, 후자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은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와 더불어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켜왔다. 창조도시에서 강조하는 창조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식산업, 그리고 영화, 음악, 디자인, 패션, 그리고 전통문화의 복원 사업 등의 문화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로 대도시를 기반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지식이나 정보, 문화적 콘텐츠처럼 무형적 사물의 상품화와 이의 생산 및 소비를 통해 발달한다. 이러한 문화산업이 국가 및 세계 경제에서 점차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유네스코는 문화에 대한 민주적 접근의 보장을 전제로 이러한 문화산업이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적 이론가들,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은 이미 1940~50년대부터 상품화된 대중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창조도시에 대한 비판과 좀 더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연구는 하비(Harvey, 1989)의 기업주의 도시에 대한 분석이다. 펙(Peck, 2005)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하비는 1980년대 탈산업 도시의 발달과 관련하여 도시 전략이 그 이전의 관리

주의에서 기업주의로 전환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도시의 재정 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재분배 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다. 도시는 과거 담당해 왔던 재분배 정책을 포기하고, 탈규제와 민영화 등을 통해 도시 개발을 경쟁적으로 촉진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탈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직은 와해되고, 노동의 유연화가 촉진되면서 고기능 고임금 노동자와 탈(미)숙련 저임금 노동자간 분화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는 유휴자본을 동원하여 고층빌딩과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전시장, 박물관, 경기장의 건설 등으로 역의 자본과 고기능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장소 마케팅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낭비적 도시 건조환경의 과잉생산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유발되는 한편,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도시의 경제적, 공간적 재구조화 과정에서 배제 또는 주변화되게 되었다. 펙(Peck, 2005)에 의하면,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이론은 이러한 도시의 경관을 서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창조도시 이론을 신자유주의와 연계시킨 비판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로 김슨과 클로커(Gibson and Klocker, 2005)는 창조도시 이론이 창조성을 신자유주의적 도시 경제성장 담론에 포섭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의하면, 창조성은 장소 경쟁성 또는 도시 발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이해되고, 도시의 창조적 환경은 역의 자본과 창조계급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창조도시 이론에 함의된 신자유주의적 담론은 대안적 창조성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된다. 에덴서 등(Edensor et al., 2010)도 역시 도시 재생과 경제 성장을 위한 창조성의 도구적 사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실제 창조도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담론과 실무들은 사실 기업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암묵적 또는 노골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들은 창조성을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안에 위치지워 개념화하는 한편, 창조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방법과 공간적 지형(토속적이고 일상적인 경관

에서의 창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많은 비판가들은 일단 창조도시 이론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 예로, 김슨과 클로커(Gibson and Klocker, 2005)에 의하면, 플로리다(2011)가 창조성과 창조적 계급을 사회적 다양성과 관용, 나아가 히피적 해방에 비유했을 때 진보적 이론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도시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켈(Peck, 2007) 역시 창조성의 개념이 자유주의적, 나아가 진보적 함의(예로 사회적 다양성,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강조, 도시 재생의 긍정적 역할 등)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핑크빛 요인들이 시장지향적, 개인주의적 전망에 포섭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예로, 프랫(Pratt, 2006)은 처음에는 켈(Peck, 2005)의 비판에 대해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창조산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했지만, 그 이후 점차 창조도시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기울게 된다. 특히 프랫(Pratt, 2011)은 창조도시 이론에서 창조성과 문화는 신자유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가면이며, 창조도시 이론은 "창조도시가 신자유주의 도시여야 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는 논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4. 창조계급의 사회적 구성과 함의 비판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창조성의 개념과 더불어 창조성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창조계급, 그리고 이의 공간적 편성으로서 창조도시, 나아가 창조계급을 유지한 창조도시에 입지하게 되는 창조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창조경제의 발달이라는 논리적 틀을 가진다. 창조성의 개념과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최병두, 2013), 여기서는 창조성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창조계급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창조성의 공간적 구성으로서 창조도시의 특성과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면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창조도시 이론은 주창자에 따라 우선적인 관심이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창조성과 혁신에

바탕을 둔다. 특히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성을 담지한 사람(또는 창조적 인력, 창조적 노동자)은 창조적 계급이라고 지칭된다. 창조계급은 생계를 위해 창조적 작업을 수행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로, 과학자, 공학자, 예술가, 음악가, 디자이너, 그리고 지식기반 전문가들을 포함한다(플로리다, 2008, 15). 창조계급은 노동계급과 서비스계급과는 구분된다. 후자의 사람들은 "주로 계획에 따라 일을 실행해 돈"을 벌지만, 창조계급의 사람들은 "주로 창조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앞의 두 계급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지닌다(플로리다, 2011, 37). 이러한 창조계급의 개념은 플로리다에 의해 제시된 것이지만, 창조경제 또는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로, UNCTAD(2010)에서, 창조계급이란 "전문적이고도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일꾼들의 집단으로, 특히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이끄는 사람들 ...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며,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이러한 창조계급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크게 3가지 유형, 즉 창조적 핵심(경제적으로 새로운 사고, 기술, 콘텐츠를 창조하는 사람들로, 주로 과학과 공학, 건축과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종사), 창조적 전문직(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상당히 독립적 판단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경영과 재정, 법, 건강관리 및 관련 분야에 종사), 자유직종 보헤미안(도시의 관용문화의 징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문화적, 예술적 직업에 종사)으로 구분된다(플로리다, 2008, 54). 이러한 "창조계급의 모든 구성원들은 ... 창조성, 개인성, 차이와 장점에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성 에토스를 공유한다. 창조계급의 구성원들에게 기술적, 문화적, 경제적 창조성의 모든 측면과 모든 구현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분리불가능하다"(플로리다, 2011, 36).

플로리다에 의하면, 이러한 창조계급은 "유의미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진 일에 종사"하며(플로리다, 2008, 53),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 추동력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창조계급은 선진국 노동력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 미국의 경우 창조계급은 전체 노동

력의 약 30%에 달하며, 약 4천만명 정도로, 과거(1950년, 15% 미만)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들의 임금은 미국 내 총임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창조계급은 탈산업 선진국의 도시들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집단들로 구성되며,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창조계급의 가치는 개인성, 성과주의, 다양성과 공개성 등에 있으며, 이들은 강한 연대보다는 약한 연대를 선호하고, '준의명성'을 갈망한다(플로리다, 2008, 48).

이러한 창조계급의 개념은 탈산업사회 또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계급(또는 계층)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조계급 개념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에서, 무형적 아이디어(지식, 문화, 예술 등)의 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집단과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창조계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유연적 축적체제 하에서 정보산업 및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산업들에 속하는 직종에서 창조성과 혁신이 강조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리다는 현대 사회가 모든 유형의 독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창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에 "창조성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그 영향력 측면에서 창조계급은 사회의 지배계급"이 되었다고 주장된다 (플로리다, 2011, 10).

창조도시 이론에서 창조성의 개념은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사람의 계급적 인식, 특히 플로리다가 제시한 '창조계급'의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가장 흔히 지적되는 점은 창조계급의 '계급' 개념과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플로리다(2005, 35)에 의하면, "계급이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계급의 개념은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비물질적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는 점 외에는 실제 공동의식을 가지거나 집단행동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Pratt, 2008). 즉 그가 제시한 창조계급에는 과학 기술자, 입법가, 중견 사무직에서 연예인이나 배

우, 스포츠 선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세부 집단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세부 집단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도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집단이 누구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성장 수사에서 창조계급이라는 용어는 용법적으로 잘못 사용된 것으로 '의사-계급적으로 신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ilson and Keil, 2008).

둘째, 창조계급의 개념은 매우 계급-편향적이며, 경제-특권적 사고를 반영한다. 플로리다의 창조계급에는 다양한 세부집단들이 포함되지만, 평균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소득을 보면 사회적 엘리트계층 또는 상위계급을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리다의 주장은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비난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다소간 창조적이며, 최소한 창조적 잠재력을 소유한다고 주장한다(플로리다, 2008, 54). 그러나 이런 반론은 그 자신이 설정한 창조계급의 한정성, 즉 창조계급을 노동계급과 서비스계급과 구분하며 또한 그 영향력 측면에서 사회적 지배계급이라고 지칭한 점과는 조응하지 않는다. 즉 창조계급의 개념은 누가 '창조적'인가를 둘러싸고 제한을 가하며, 결국 경제적 가치와 무관한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이러한 창조계급의 개념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간 낡은 구분을 되풀이 하면서 계급 구분을 재생산하게 된다(Edensor et al, 2010). 달리 말해, 창조계급의 개념은 새로 등장한 사회적 지배계급의 지위와 역할을 정당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상위계층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셋째, 창조계급의 개념은 특정 형태의 가치화, 즉 창조성의 상품화된 시장 가치화를 촉진한다. 창조계급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모든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창조성을 상품화하고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해야 한다. 음악이나 영화처럼 지적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쉽게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은 장려되는 한편, 상품화되기 어려운 창조성 또는 창조적 노동은 주변화된다. 이로 인해, 문화 및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창조적 사람들은 창조적 기업가 또는 노동자로 재규정되며, 이들의 문화와 예술은 상품화되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인을 기업가 또는 임금 노동자로 재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특이성을 무시하고(Markusen, 2006),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하여 자신의 창조성을 이윤 창출 또는 생존과 소득을 위해 상품화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 활동이나 도시 재생과 관련된 창조적 실무들은 흔히 시장주도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주의적 도시 정책과 결합된다. 창조계급의 신자유주의적, 기업주의적 사고는 특권화되며, 대안적 창조성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게 된다(Gibson and Klocker, 2005).

넷째, 창조계급의 개념은 창조적 주체들을 탈공동체적 개체로 전락시킨다. 문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콧(Scott, 2008)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적 생산체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협력과 신뢰, 호혜적 상호관계와 네트워크 등 오랜 전통과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 지역적 차원에서 작동하며, 이러한 지역적 생산체계는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플로리다의 창조계급 개념에서 창조적 주체는 창조적 분위기에 끌리는 초이동성과 장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만끽한다. 기업주의적 도시의 관점에서, 모든 창조성이 상품화되는 것처럼, 창조적 재능을 가진 노동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매우 민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희소자원으로 대상화될 뿐이다. 이러한 창조계급의 개념은 창조적 노동과 실마가 실제로 대면적 상호관계와 호혜적 교류를 필요로 하는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와 공동학습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다섯째, 창조계급의 개념은 유연적 노동시장의 조건을 규범화한다. 창조계급의 개념에서 창조적 노동자는 고정된 근무조건으로부터 해방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설계 등이 가능한 주체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 창조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며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Scott, 2006). 예로 비정규직 시간강사나 프리랜스로 활동하는 연예인들과 같은 창조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일감을 얻기 위해 빈번하게 작업장을 바꾸어야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행하는 작업의 많은 부분들은 대기업이나

더 큰 조직의 이해관계에 기여하지만, 이들은 임시직 노동자로서 자신의 창조적 성과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기규율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전락하며, 자신의 작업 수행에 대해 엄청난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를 위해 자기규율을 감내하면서 장기간 노동을 해야 한다. 즉 창조계급의 개념은 “기업주의적 창조적 주체에 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이른바 창조계급의 구성원들이 봉착하게 될 권력관계, 규율과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된다(Banks, 2009).

여섯째, 끝으로 창조계급의 개념은 도시경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플로리다는 창조성과 이를 담지한 창조계급의 유치가 도시 발전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그의 분석에 의하면, 창조계급과 상관관계에서 혁신(0.34), 하이테크산업(0.38), 인재(0.64)는 각각 나름대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지만, 창조계급과 고용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는 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플로리다, 2008, 57). 이는 창조계급의 유치가 일자리의 창출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가 제시한 창조계급의 범주에는 투기적 활동에 종사하는 금융 및 부동산 사업 종사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바탕을 둔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기보다는 투기적 자본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들의 활동은 투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발전 모형에서 딜러계급(Dealer class)의 등장을 의미하거나(Kratke, 2010), 또는 하비(2007)가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경제발전을 추동하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부의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함에 따라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5. 창조도시의 공간적 구성과 함의 비판

창조도시라는 용어는 랜드리(2005)에 의해 우선 제시된다. 그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인간의 지혜, 욕망, 동기, 상상력, 창조성이 지금까지 도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입지, 자

연자원, 시장의 접근성을 대체하고 있다”(랜드리, 2005, x). 그는 이와 같이 창조성과 혁신을 중요한 자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지칭한다. 플로리다도 이와 유사하게 “도시는 창조성의 원천이다. 도시는 오랫동안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를 동원하고, 집중시키고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의 형성과 성장에서 창조성의 역할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십년 동안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축소됨에 따라 도시, 지역 그리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서 창조성이 매우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고 주장된다(플로리다, 2008, 11).

랜드리와 플로리다는 이와 같이 도시를 창조성의 원천으로 인정하지만, 창조도시에 관한 이들 양자의 주장과 논리적 전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랜드리에 의하면, 많은 창조적 도시들은 경제 재생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1980년대에 경시되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실험적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회 참여와 고용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된다(임상오·전영철, 2009). 반면 플로리다에 의하면, 도시가 창조성의 원천으로 중요한 점은 창조계급이 전통적인 기업 집적지역이나 노동계급의 거점에서 벗어나 자신이 지칭한 창조적 거점 또는 창조도시라는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는 토지 또는 원료와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 또는 고정된 축적 자산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인 요소로서 기술과 인재를 부여 받은 곳이다(플로리다, 2008, 18).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는 이러한 창조적 인력의 유치와 이에 바탕을 둔 도시의 경쟁성 및 경제 성장을 우선 목표로 한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창조도시란 사람들의 창조성에 의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문화와 예술을 창출하고, 당면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인재와 혁신적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창조계급은 이러한 창조도시의 매력에 이끌려 이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발전을 이루어내게 된다. 창조도시 개념은 현대 도시들이

산업시대에서 탈산업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시 문제들의 해법으로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창조도시 또는 창조계급의 등장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이 아닌 역사적 과정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은 장소와 인프라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투자를 넘어서야 한다. 즉 탈물질적 가치체계의 확산과 더불어 인적, 문화적 자원이 도시의 재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자원들은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외부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창조도시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거나 유치하고, 창조적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가진다. 랜드리(2005, 151-189)는 이러한 창조도시의 기반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인간과 재능의 다양성, 학습하는 조직문화, 강력한 지역 아이덴티티, 도시의 공적 공간과 공공 문화시설, 작근된 네트워크와 역동성 등 7가지를 제시한다. 플로리다는 창조도시의 조건을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또는 창조성과 창조계급을 유인할 수 있는 특정 요인으로 이해한다. 그가 창조경제 발전의 3가지 핵심 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인재, 관용은 이른바 3T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관용은 개방성, 포용성, 인종 및 생활양식의 다양성으로, 인재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기술은 도시의 혁신과 하이테크 집중 정도로 정의된다(플로리다, 2008, 58). 이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지표들(예로 보헤미안 지수, 게이 지수 등)이 제시된다.

창조적 인재 또는 창조계급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장소, 즉 창조도시에서 배양되거나 매력을 느끼고 이주하게 된다. 특히 플로리다(2008, 53-55)에 의하면, 창조계급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성, 개방성, 창조성을 갖춘 창조적 거점으로 이동한다. 창조계급은 “장소에 앞서 맹목적으로 일자리를 쫓아가지는 않는다. 대신에 ... 포용적이고 다양한 장소에 이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들이 집중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집적한다”(플로리다, 2008, 46). 즉 창조계급의 집중도가 높은 창조적 거점들은 여러 형태의 창조성이 뿌리 내리고 번성하는 통합된 경제시스템의 장소 혹은 서식처가 되며, 이에 바탕을 두고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계급은 매우 높은 이동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고정된 축적 자산이 아니라 일시적인 흐름”이며, “기술과 인재는 장소들을 드나드는 매우 유동적인 요소”로 간주된다(플로리다, 200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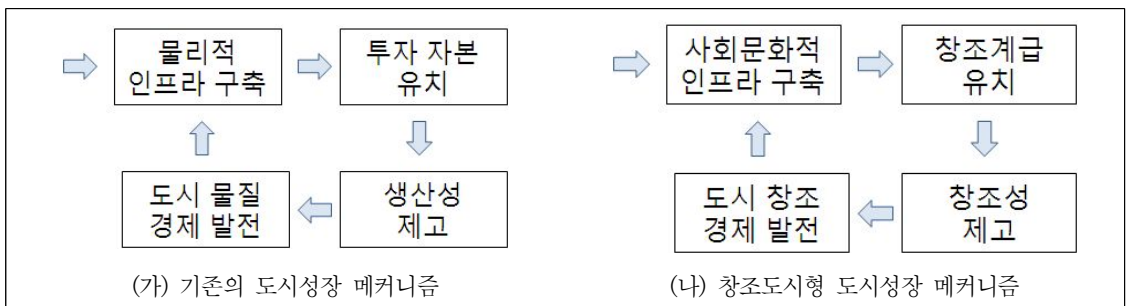
도시 성장의 메커니즘(또는 도시 재생 전략)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메커니즘이나 전략과 비교될 수 있다(그림 1). 기존의 도시 성장 메커니즘이나 전략은 우선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외 자원을 유치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의 물질적 경제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반면, 창조도시 이론에서 제시된 성장 메커니즘이나 전략은 우선 사회의 문화·예술적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창조계급을 유치하게 되면, 도시의 창조성이 제고되고 이를 원천으로 도시의 창조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요컨대 창조성이 도시 성장의 원천이라면, 창조계급은 이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계급이 유치(또는 배양)되어야만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도시의 창조계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랜드리와 플로리다 등에 의해 주창된 창조도시의 개념은 이에 관한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많은 논의와 더불어 이들이 제시한

조건이나 지표들과 도시 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전개되도록 했다. 이러한 창조도시의 개념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하며, 또한 실증 분석에서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단 제쳐 놓고, 몇 가지 주요한 개념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창조도시 개념은 (대)도시를 우선하고 이에 관심을 한정시킨다. 탈산업 도시는 기술적 및 문화적 혁신의 중심지인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창조도시 이론가들은 대도시의 창조성과 이를 담지한 창조적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예로, 플로리다의 실증연구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다결절적 창조적 거점으로 뉴욕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UNCTAD(2010)의 창조경제에 관한 보고서는 세계 주요 창조도시로 런던, 파리, 뉴욕, 몬트리올 등을 제시한다. 대도시 지역은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창조계급을 위한 경쟁을 고려할 때 우선된 분석단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도시가 문화적 생산의 거점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와 창조성은 대도시에만 존재 또는 함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논리적으로 보면, 창조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장소들은 창조성을 함양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창조성 또는 창조적 사람들은 대도시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근교,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도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계급에 관한 개념적 서술에서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된다(Edensor et al, 2010).

둘째, 창조도시 개념은 도시에 작용하는 국가적, 지구적 측면을 무시한다. 도시의 창조성과 혁신은



자료: 정재희, 2009, 19; 강인호 등, 2013, 198 수정.

그림 1. 도시 성장 메커니즘(또는 도시 재생 전략) 비교

도시 그 자체의 국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조건지워 진다. 예로, 창조도시의 조건에서 인재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인 교육문제는 도시 문제라기보다 국가적 교육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조성이 높은 세계도시들의 전망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물론 세계의 대도시들은 항상 창조성과 혁신의 중심지이며, 따라서 창조성과 혁신은 도시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도시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과정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고찰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이해하기 어렵다. 달리 말해 창조도시 개념은 창조성 논의를 도시 규모에만 한정하지만, 창조성은 도시 외의 다른 규모에서 작동하는 요인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다규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김동완, 2008). 즉 도시의 창조성은 도시 규모의 지표들 외에도 국가적 지구적, 또는 근린 규모의 다양한 요인들이 도시적 맥락에서 접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창조도시 개념은 ‘창조도시’를 시공간을 초월한 규범적 전망으로 설정한다. 창조성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창조성의 발현은 시공간적 조건에 좌우된다. 즉 문화와 예술은 인간 창조성의 실현으로서 보편적 속성을 가지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역사적 발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창조도시 개념은 각 도시들이 처한 시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량화된 창조성 지수에 근거하여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는데 우선적 관심을 둔다. 이러한 시도는 창조도시를 명분으로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는 표준화된 정책을 이끌어 각 도시가 지닌 특성이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이용숙·최정인, 2012, 10). 플로리다가 선구적인 저작으로 인용한 제이콥스(Jacobs)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역사의 특수한 맥락을 보지 않은 채 규범적, 이상적 정책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소멸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Jacobs, 1961; 김동완, 2008, 151 재인용).

넷째, 창조도시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

정을 정당화한다. 창조도시 개념은 문화와 창조성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문화적 도시 재생이나 발전 전략을 특권화한다. 예로 문화적 도시 발전을 위하여 도시 내 특정 문화지구(예로 재활성화된 도시센터, 보헤미안 문화엔클라브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적 장소 만들기 전략은 도시의 예술가들이나 문화 소비자들, 그리고 도시 관광객이나 투자자들에게 호소하는 새로운 심미적 도시경관의 구축, 공적 영역 개선사업, 새로운 정체성 함양을 위한 도시설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장소들은 흔히 기업주의적 도시 또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에 의해 기함 프로젝트(flagship projects)로 시행된다(최병두, 2012). 이들은 예로 도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초고층 건축물이나 화려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개발 중심 정책들은 실제 창조성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도시인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도시 전체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이에 참여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족을 우선한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도시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과정(도시의 부동산 개발이나 선별적 개선)에서 특정 기능적 엘리트를 선호하는 도시 재구조화 방안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Kratke, 2010).

다섯째, 창조도시 개념은 창조계급의 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 발전에 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창조계급은 새로운 ‘창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새로운 창조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클러스터가 도시 재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문화적 조건들의 국지적 개선을 통해 창조계급을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고무할 것이라는 창조도시 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심지어, 에텐서 등(Edensor et al., 2010, 6)은 창조적 클러스터 또는 창조산업의 집중과 집적은 실제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내 투자의 집중은 창조계급으로 개념화된 고소득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지

만 다수의 중하위 시민들을 배제하게 되고, 사회 공간적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끝으로, 창조도시 개념은 도시 및 국토 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플로리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성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나 지역들은 새로운 기회의 도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는 이러한 창조성의 사회공간적 실현을 둘러싼 경쟁을 강조하고, 이 경쟁에서 이긴 집단이나 지역이 지배자 또는 승자가 된다고 서술한다. 창조도시는 탈산업시대 신경제 체제 하에서 일부 창조계급(즉 고급 지식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지만, 이에 속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창조계급에 종속되거나 창조도시로부터 배제되게 된다. 창조계급의 개념이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간 넓은 구분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창조도시의 개념은 창조계급에 의해 특권화된 지역을 우선하고, 빈곤 지역은 창조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장소로 인식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고급 지식노동자의 지배 계급화와 도시 내 새롭게 재생된 장소들의 특권화는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불균등을 확대시킨다. 플로리다(2008, 219) 자신도 창조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 간 불평등은 국가 경쟁력에 위협이 된다는 딜레마를 스스로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결론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탈산업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공간적 재구성 간 관계를 반영한다. 이 이론은 문화경제(또는 창조경제)의 발달과 이로 인한 도시의 사회적 및 공간적 구성 간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 발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조도시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문화적 전환’ 또는 문화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 가운데 특히 창조성과 창조적 인력에 직접 초점을 두고 체계화된 것이다. 즉 창조도시 이론은 포스트포드주의적 신경제에서 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부각시킨 문화도시이론이나 세부 분야별 또는 특정 지역별 문화 활동의 역동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문화혁신(클러스터)이론 및 문화도시 정책론 등과 같은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다.

또한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화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예로 창조도시에 관한 랜드리的主張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창조적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창조성에 바탕을 둔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의 장소가 가지는 질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유치된 창조계급에 의한 경쟁력 향상과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창조적 문화·예술산업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창조산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창조도시 이론은 공통적으로 창조성과 혁신을 도시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함양 또는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창조도시 이론은 개념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창조도시를 개념적으로 고찰한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은 창조성과 창조도시의 유의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이론이 가지는 개념적 한계 또는 이 이론의 정책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영향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창조도시는 도시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창조성에 주목하는 여러 담론과 접근법을 아우르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지만(이철호, 2011), 또한 창조도시는 “자본의 투자와 경제적 효용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이라고 비판된다(김소희, 2010). 이들은 이러한 비판에서 나아가 창조도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인권도시, 시민공간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많은 서구 연구자들의 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의 비판적 성찰에 의하면, 창조도시 이론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과 결합하거나 또는 이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성 또는 창조경제의 사회적 구성을 개념화한 창조계급의 개념은 ‘계급’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계급-편향성과 경제 특권적 사고, 상품화 또는 시장 가치화의 촉진, 탈공동체적 개체화, 유연적 노동시장의 규범화, 도시 경제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창조성과 창조경제의 공간적 구성을 개념화한 창조도시의 개념은 (대)도시에 한정된 관심, 국가적 및 지구적 차원 무시, 탈맥락적 규범적 전망,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당화, 창조계급 유지 및 경제 발전과의 인과성 입증 부족, 도시 및 국토 공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고찰은 물론 이 개념을 원용한 정책에 관한 연구와 현실 도시의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도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한계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해, 이 연구는 창조도시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지만, 우리 사회를 진정하게 변화시킬 창조성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소희(2010)나 에덴서 등(Edensor et al., 201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창조성은 소수 엘리트 계층의 고급 문화가 아니라 도시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의 달성보다 도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감 해소와 공동체 속에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문헌

강인호·이계만·신영순, 2013, 도시발전을 위한 창조도시 발전 전략 접근의 유용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195-216.
 김동완, 2008, 규모의 지리 측면에서 바라본 창조적 계급과 도시 창조성: 도시 창조성의 재구성 과 도시 정책적 시사점, 공간과 사회, 29, 148-175.
 김소희, 2010, 창조도시의 그늘과 탈출구로서 소통의 정감적 공동체: 사회의 '동지'를 향한 도시인의 열정, 문화예술교육연구, 5(3), 29-61.
 김준홍, 2012, Richard Florida의 창조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을 중심으로, 랜드리(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London.
 사사키(佐佐木雅幸, 정원창 역), 2004, 창조하는 도시: 사람, 문화, 산업의 미래, 소화; 佐佐木雅幸, 2001, 創造都市への挑戦-産業と文化の息づく街へ, 岩波書店.
 이용숙·최정인, 2012, 싱가포르의 창조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공간과 사회, 22(2), 5-37.
 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29(1), 109-131.
 이희연·이제연, 2010, 지식창출활동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297-311.
 임상오·전영철, 2009, 창조도시 담론의 쟁점과 재정학적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1(3), 157-190.
 정성훈, 2012,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1), 385-408.
 정재희, 2009, 남해안시대 창조도시화 전략, 경남발전연구원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최병두, 2013,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공간과 사회, 45, 90-130.
 플로리다(이원호·이종호·서민철 역), 2008,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London.
 플로리다(이길태 역, 개정판), 2011, 신창조계급, 북 콘서트; Florida, R., 2000,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New York(번역 초판은 이길태 역, 2002,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하비(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한울;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P.
 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모델에 의거한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 플로리다, 사사키, 랜드리 의 논의를 중심으로, ECO, 12(2), 185-206.
 한세역, 2011, 사회공공성 모델에 근거한 창조도시담론의 비판적 성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378-397.
 Amin, A. and Thrift, N., 2007, Cultural economy

- and c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2), 143–161.
- Banks, M., Fit and working again? The instrumental leisure of the 'creative clas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3), 668–81.
- Bianchini, F. and Parkinson, M.(eds),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Manchester Univ. Press, Manchester.
- Boren, T. and Young, C., 2012, Getting creative with the 'creative city'? Towards new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urba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 (5), 1799–1815.
- Caves, R. E., 2000,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Harvard University Press.
- Clifton, N., 2008, The “creative class” in the UK: an initial analysi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90(1), 63–82.
- Cooke, P. and Lazzarretti, L. (eds), 2008,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dward Elgar, Cheltenham, UK.
- Costa, P., 2008, Creativity, innovation and territorial agglomeration in cultural activities: the roots of the creative city, in Cooke, P. and Lazzarretti, L. (eds),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dward Elgar, Cheltenham UK, 183–210.
- Edensor, T., Leslie, D., Millington, S., and Rantisi, N.M., 2010, Introduction: rethinking creativity: critiquing the creative class thesis, in Edensor, T., Leslie, D., Millington, S., and Rantisi, N.M.(eds), *Spaces of Vernacular Creativity: Rethinking the Cultural Econom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6.
- Gibson, C. and Klocker, N., 2005, The 'cultural turn' in Australia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discourse: neoliberalising creativity? *Geographical Research*, 43(1), 93–102.
- Gibson, C. and Kong, L., 2005, Cultural economy: a critical review,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541–561.
- Harvey, D., 1989,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B*, 71B, 3–17.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New York.
- Kong, L. and O'Connor, J. (eds), *Creative Economies, Creative Cities: Asian–European Perspectives*, Springer, London and New York.
- Krätke, S., 2010, 'Creative cities' and the rise of the dealer class: a critique of Richard Florida's approach to urba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835–53.
- Lazzarretti, L. (ed), 2004, *Art Cities, Cultural Districts and Museums*, Firenze University Press, Firenze.
- Lorenz, E. and Lundvall, B., 2010, Accounting for creativity in the European Union: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5, 269–294.
- Markusen, A., 2006,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a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a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921–1940.
- O'Connor, J. and Wynne, D.(eds), 1996, *From the Margins to the Centre: 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Post-industrial City*, Arena, Aldershot.
- Peck, J., 2005,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740–770.
- Peck, J., 2007, The creativity fix, Eurozine(June 28). <http://www.eurozine.com/articles/2007-06-28-peck-en.html>
- Peck, J., 2011, Creative moments, working culture, through municipal socialism and neoliberal urbanism, in MaCann E.J. and Ward, K.(eds), *Mobile Urbanism: Cities and Policymaking in the Global Age*, Univ. of

- Minnesota, Minneapolis, 41-70.
- Pratt, A., 2004. The cultural economy: a call for spatialized 'production of culture'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7(1), 117-128.
- Pratt, A., 2006. Advertising and creativity, a governance approach: a case study of creative agencies in Lond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0), 1883-899.
- Pratt, A., 2008, Creative cities: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reative class, *Geografiska Annaler: B - Human Geography*, 90(2), 107-117.
- Pratt, A., 2011,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the creative city." *City, Culture and Society*, 2(3).
- Rutten, R. and Gelissen, J., 2008, Technology, talent, diversity and the wealth of European reg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16(7), 985-1006.
- Scott, A., 2000,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Sage, London.
- Scott, A., 2002, A new map of Hollywoo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merican motion pictures, *Regional Studies*, 36, 957-75.
- Scott, A., 2006, Creative citi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ques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28(1), 1-17.
- Scott, A., 2010, Cultural economy and the creative field of the city, *Geografiska Annaler: B - Human Geography*, 92(2), 115-130.
-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UNCTAD, 2013, 창조경제보고서).
- Wilson, D. and Keil, R., 2008, Commentary: the real creative class,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9(8), 842-847.
-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Blackwell, Oxford.
- (접수: 2014.01.28, 수정: 2014.02.17, 채택: 2014.02.23)